

4.五行의 旺相論

①五行의 個體 및 그 相互間의 生成, 發展, 安定, 停滯, 衰退의 運動단계를 旺相死囚休의 부호로 표시한 것으로 五行의 相生相剋 관계로 표시하면 我를 중심으로

我는 旺(王相之任): 같은 기운에 힘입어 기능을 최대한 발현함
 生我者는 相(則生): 本體에 滋養을 받아 機能을 활발히 發揮하는 時空
 克我者는 死(克): 자기를 克하는 氣運에 의해 기능이 사라지고 정지함.
 我克者는 囚(圍人): 相侮의 氣運에 의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억압됨.
 我生者는 休:引하는 氣運에 의해 원활히 기능을 발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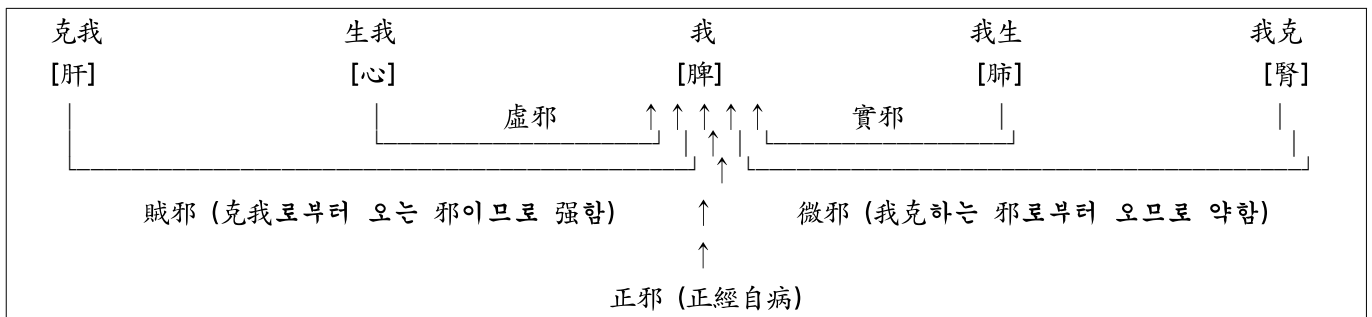
※ 變化 原則 (cf, 我克囚, 克我死로 해석, 我를 五臟으로 해서 문제해결)

	春	夏	長夏	秋	冬
肝(木) 風	旺	休	囚	死	相
心(火) 熱	相	旺	休	囚	死
脾(土) 濕	死	相	旺	休	囚
肺(金) 燥	囚	死	相	旺	休
腎(水) 寒	休	囚	死	相	旺

5. 五邪(難經.50難)

- ①虛邪(從後來者): 母病及子 -- 病邪가 生我하는 데(母의 位)서 傳來한 것.
 어떤 臟에 病이 있을 때 我生의 臟에 그 影響을 미치는 것.
 ex. 水不涵木(=>肝陽上亢, 虛證), 心肝火旺(實證)
- ②實邪(從前來者): 子盜母氣(子病及母) -- 病邪가 我生(子)하는 데서 傳來된 것.
 어떤 한 臟에 病이 들었을 때 生我的 臟에 影響을 미치는 것.
- ③賊邪(從所不勝來者): 病邪가 克我하는 데서 傳來한 것(相乘의 傳變)
 어떤 한 臟에 병이 있을 때 我克의 臟에 影響을 미치는 것. ex. 木旺乘土
- ④微邪(從所勝來者): 病邪가 我克하는 데서 傳來한 것(相侮의 傳變)
 어떤 한 臟에 병이 있을 때 克我的 臟에 影響을 미치는 것. ex. 木火刑金, 土虛水侮
- ⑤正邪(自病者, 스스로 앓는 것): 臟자체의 속성과 같은 病邪의 침범으로 발병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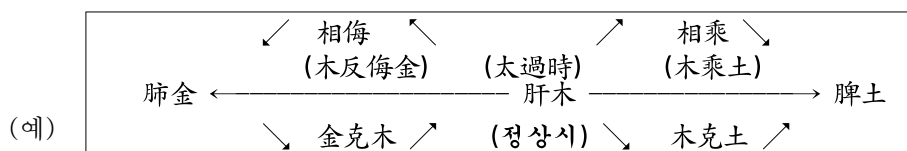
■五邪傳變論 (‘難經’에서 由來)



6. 五行의 相生/相克/制化 및 相乘/相侮/勝復

	관계	정의	용도 및 세부내용
정상현상 (平衡유지)	相生	五行 즉 木火土金水 사이에 순서에 따라 資生, 助長, 促進하는 관계	- 자연계의 현상 파악과 인체 장부 조직사이의 相互資生관계 이해에 도움. 예) ‘母能令子虛’ ‘子能令母實(瀉子하여 母實을 다스림)’
	相克 (相勝)	이겨서(克=勝) 조정(=制)해 주는 克制관계	- 오장의 생리기능 사이의 相互制約 관계 이해 - 오장의 病變 傳變을 해석 (예) 心火는 金을 조정해 준다. (火克金)
	制化	평형이 유지되도록 化(=生化, 變化)와 制(=克制, 制約) 가 상호작용하는 관계	- 亢害承制: ‘亢盛은 害가 되므로 상응하는 氣로 방어(=承)하여 制約(=制)해야 함’을 의미. - 정상적인 制約이 있으면 정상적 生化가 유지됨.
非正常的 현상 (平衡破壞)	相乘	정상적인 限度의 相克현상을 초과해 출현하므로 오행 사이의 協調平衡관계가 파괴된 것	我的 太過로 인한 相乘 (예) 木乘土: 木이 지나치게 강하면 土가 상대적으로 부족이 되어 木克土를 넘어 木乘土(평형파괴).
			我的 不及으로 인한 相乘 (예) 木乘土: 土가 지나치게 약하면 木이 상대적으로 과잉이 되어 木克土를 넘어 평형파괴. → ‘土虛木乘’ 또는 ‘土衰木賊’이라 함
	相侮 (反侮, 反克)	‘我克이 상대적으로 강해져서’ 상극관계를 유지 못하고, 거꾸로 我克이 我를 업신여기게 된 관계. 相克의 逆順으로 克制현상이 나타남.	我的 太過로 인한 相侮 (예) 金克木이어야 정상이나 木이 太過하면 逆順으로 剋制하며, 이를 ‘木反侮金’이라 부름.
			我的 不及으로 인한 相侮 (예) 金克木이어야 정상이나 金이 不及하면, 金이 木을 剋制 못하고 오히려 剋制를 당함: ‘木反侮金’.
	勝復	五運六氣의 一年間의 相勝相制/先勝後復의 상호관계를 말함. 비정상적 변화 후에 스스로 평형을 회복하는 機轉임.	①勝은 勝氣이며 復은 復氣(=보복하는 기)로서, 일년 중 상반기에 勝氣가 우세했다면 하반기에는 반드시 이와 반대되는 復氣가 있게 된다. → ∴ 협조평형을 회복 ②勝氣: -五運六氣의 六氣중 한 기후가 過度亢盛한 경우나 -五運중 한 歲運이 부족하여 歲運이 이기지 못하는 氣가 大行한 경우에 형성되는데 이런 妄行하는 氣運을 ‘勝氣’라 함. ③子復母仇(讐): ‘자식이 어미의 원수에게 보복한다’는 뜻으로서 勝氣를 보복하는 氣를 말하며, 보복 받는 행의 子가 보복함.. (예) 木 亢盛 → 土 ↑ ↓ └────────┘ 金(土의 子) 復

* 相乘/相侮는 順次적인 관계에 의해 영향 (정상순서냐, 역순이냐?):



제3장 五運六氣

제1절 概說

1. 五運六氣의 개념

運氣學說은 五運六氣를 운용하여 天體運動과 氣象 및 氣候가 生物(人間을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學說이다. 運氣學說은 陰陽五行學說이 核心을 이루며 "天人相應"이라는 整體觀念의 기초아래 수립된 學說이다.

五運, 六氣, 三陰三陽의 이론을 기초로 天干, 地支 등의 符號를 演繹道具로 이용하여 기후의 변화와 인체의 疾病發生 規則을 推測

(自然界에서의 五運六氣의 변화와 인체에서의 五臟之氣와 三陰三陽 六經之氣의 운동이 相應)

- 五行 : 自然自體의 法則과 象 => 固定的, 靜的
- 五運 : 五行이 실현하는 자율현상의 變化自體의 法則과 象
- 六氣 : 五運의 氣化作用이 지구주위에 집중하게되면 지구에서는 六氣로 변화, 즉, 六氣는 지구에만 존재

☯ 五運과 六氣의 차이점

五運 - 天氣 : 하늘에서 작용하는 無形의 造化氣運 - 歲運주축

六氣 - 地氣 : 五運이 지구에서 현실화되어 작용하는 구체적 氣運 - 歲氣주축

2. 運氣學說의 基本內容

1) 干支의 陰陽屬性 : 太過와 不及의 判斷基準

天干(陽)	陽干	甲 丙 戊 庚 壬	太過年
	陰干	乙 丁 己 辛 癸	不及年
地支(陰)	陽支	子 寅 辰 午 申 戌	
	陰支	丑 卯 巳 未 酉 亥	

2) 干支의 運用法則

■ 天干的 活用법

(1) 天干的 配五行(兄弟五行配屬) => 固定不變, 靜的개념, 方位

=>主運에 活用 : 1년을 五段階로 나누어 설명
매년 고정불변

五行	木	火	土	金	水
五方	東	南	中	西	北
天干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

(2) 天干的 化五運(夫婦五行配屬) ==> 大運과 客運을 설명할 때 活用 : 매년 變化함

大運(中運) : 歲運으로 1년을 總括 => 그 해 '年干'을 化五運으로 배속(아래의 표)

客運 : 1년을 五等分하여 異常變化 설명 - 每年 大運이 客運의 初運이 됨.

五運	土	金	水	木	火
天干	甲己化土	乙庚金	丙辛水	丁壬木	戊癸火

■ 地支의 活用法

(1) 地支의 配五行(方位五行配屬) ==> 主氣에 活用 : 1년을 6等分하나 主運과 비슷한 개념

오행	木		火		土				金		水	
方位	東		南		中				西		北	
12월	1월	2	4	5	3	6	9	12	7	8	10	11
地支	寅	卯	巳	午	辰	未	戌	丑	申	酉	亥	子

=> '歲會' 추산에 활용

※ 붉은 색은 色은 四正方(子午卯酉), 四隅(辰未戌丑) => '歲會'의 조건

(2) 地支의 化氣五行(三陰三陽六氣配屬) ==> 客氣(司天之氣) 推算에 활용

子午	丑未	寅申	卯酉	辰戌	巳亥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太陽寒水	厥陰風木

*** 五運六氣에서 天干은 運을 主하고 地支는 氣를 主한다.

3. 五運

土金水木火의 五行에 각기 天干을 배합하여 歲運(當年の 運)을 추측

1) 大運(歲運 또는 中運이라고 함)

① 每年 '全年'의 歲運으로 기후변화를 총괄적으로 주관 : 한 번 완전한 순환은 10년이 걸림
=> 氣候變化와 이에 相應하는 臟腑機能변화의 일반 規則.

② 夫婦五行配屬(化五運)에 의해 결정되며 陽干(甲丙戊庚壬)은 太過年(本氣가 流行),
陰干은 不及年(克己의 氣가 流行)에 해당

ex) 甲子년 -- 甲己化土에 해당 : 大運은 土運이고, 甲은 陽干, 즉 太過이므로 土氣(濕)가
全年에 걸쳐 유행=>脾胃病變이 多發

2) 主運

① 一年 中の 五運季(一年을 5단계로 나눔)의 기후변화의 常規를 설명함

② 每年 固定不變 : 大寒日부터 73일5刻마다 木火土金水의 순서로 진행

③ 추산방법 : '大寒'日로부터 五行相生의 순서로 진행됨(始作日是 같으나 時間은 다름)

3) 客運

① 매년 五運季의 異常氣候變化를 설명

② 매년 變更됨

③ 추산방법 : 해당 年의 大運에 따라 확정(大運이 客運의 初運->相生順序로 推移)

(甲己土, 乙庚金, 丙辛水, 丁壬木, 戊癸火)

ex) 甲子년의 경우 : 大運은? 土太過(太宮年)-> 甲己化土 따라서 客運의 初運은 ? 土運이 됨

	初運	二運	三運	四運	五運	
主運	木	火	土	金	水	主運은 매년 同一한 五段階로 진행
客運	土	金	水	木	火	매년 大運에 따라 변화
客運五音	太宮	少商	太羽	太角初	少徵	五音を 활용하여 太過不及 표시 가능

=> 太角 少徵 太宮 少商 太羽 으로 되는 데=> 궁상우 각치 의 순서로 기재해야 함.

※ 主運의 初運은 영원히 木運으로 고정됨,終運은 水運 : 主運은 매년 동일

4. 六氣

1) 主氣

① 매년 각 계절기후의 정상적인 규율을 설명

② 六氣가 時를 관장하는 것은 固定不變하므로 主氣라 한다.

③ 主運과 같이 大寒으로부터 2개월씩(4節氣)씩 배합-->初之氣부터 五行相生 순서로 진행

*主氣의 순서(相生) : 厥陰風木->少陰君火->少陽相火->太陰濕土->陽明燥金->太陽寒水

2) 客氣

① 매년 기후의 異常變化 또는 特殊한 情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

매년 각 節序를 주관하는 이외에 全年의 변화를 개괄(司天, 在泉之氣)

② 年年이 移轉되어 고정되지 않고 왕래 : 12년(司天, 在泉, 左右間氣는 6년)에 한 번씩 순환
함

③ 추산 : 地支를 三陰三陽六氣와 배속시켜 三氣의 위치에 놓고(三之氣를 司天之氣라 함)
三陰三陽의 순서로 推移

*客氣(陰陽多少패턴) : 厥陰風木-少陰君火-太陰濕土-少陽相火-陽明燥金-太陽寒水

ex) 甲子년 : 地支를 보면 “子” --> 子午少陰君火를 三氣에 배속(司天之氣)하고
나머지를 三陰三陽의 순서로 배열

■ 年支와 司天 在泉의 配合 規律表

年支	司天	在泉
子午	少陰君火	陽明燥金
丑未	太陰濕土	太陽寒水
寅申	少陽相火	厥陰風木
卯酉	陽明燥金	少陰君火
辰戌	太陽寒水	太陰濕土
巳亥	厥陰風木	少陽相火

司天과 在泉은 陰陽屬性이 相反됨, 음양의 多少는 相應함.

④ 司天, 在泉, 左右間氣

- 司天과 在泉은 客氣의 變化 上의 다른 명칭.

- 司天之氣 : 매년 上半年 主管. 客氣의 三之氣에 해당(가장 중요함)

在泉之氣 : 매년 下半年 主管. 終氣(六之氣)에 해당

左右間氣 : 司天, 在泉之氣의 左右에 있는 氣(마주보면서 左右를 정함: 司天↔在泉)

※ 司天을 上, 在泉을 下에 두고 마주 보면서 左右間氣를 결정(在泉은 下-->上)

ex) 少陰君火가 司天일 때의 司天의 右間氣는? 厥陰風木,

“ 初之氣는? 太陽寒水(이때의 在泉之氣인 陽明燥金의 左間氣가 太陽寒水)

司天③

右間 ② 左間④ => ②는 司天의 右間(氣)

左間 ① 右間⑤ => ⑤는 在泉의 右間(氣)

在泉⑥

⑤客氣의 異常變化

- 不遷正 : 마땅히 도래해야 할 值年의 司天之氣가 전도되지 않은 것
- 不退位 : 마땅히 물러가야 할 值年의 司天之氣가 여전히 停留
- > 客氣의 升降이 失常

⑥ 客氣의 勝復變化

- : 상반기에 異常勝氣가 있으면 下半年에 이로 인해 相反되는 復氣가 발생하는 것
- 時와 順序에 있어서는 일정한 規律이 있다.
 - 初氣~三氣까지 司天이 지배할 때 異常氣候가 발생하면 勝氣라 칭하고
 - 四氣~終氣까지 在泉이 지배할 때 異常氣候가 발생하면 復氣라 칭함.
- 勝復의 氣의 매년 '有無'에는 일정한 規律이 없다.
- 勝氣가 있는데 復氣가 없으면 災害가 발생한다.

3)客主加臨 : 客氣와 主氣를 相合하여 氣候變化를 비교분석 推算함

① 해마다 輪轉하는 客氣가 고정된 主氣 위에 加臨하여 기후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

즉 客氣의 司天을 主氣의 三之氣 위에 相合시키고 나머지 五步를 차례대로 배열한 것.

(=>六步를 동시에 나누어 加臨할 수 있지만, 司天之氣를 主氣의 三之氣에 加臨한 것을 爲主)

② 氣化之逆順 : 客氣와 主氣의 五行生克과 君火, 相火의 위치(君臣의 위치)에 의해 결정

- 順 : ①客克主, 客生主 ②君火가 相火 위에 있을 때 - 이상변화가 심하지 않음.
- 逆 : 主克客, 主生客 - 이상변화가 비교적 큼
- 同氣 : 양자의 성질이 같을 때 -- 이상변화가 倍加(倍烈)

♣ 손님대접을 잘해야... 주인이 너무 잘나서 손님을 이겨버리면 좋을 게 있을까요?

ex>甲子年 客主加臨 -> 子午少陰君火가 司天之氣(客氣 三之氣)

	初氣	二氣	三氣	四氣	五氣	終氣
客氣	太陽寒水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主氣	厥陰風木	少陰君火	少陽相火	太陰濕土	陽明燥金	太陽寒水
	順	順	順	同氣	順	順

※-客主加臨 : 客氣와 主氣의 관계 : 즉 六氣만의 문제

- 運氣相臨(盛衰) : 大運과 司天之氣의 관계(順化, 天刑, 小逆, 不和)
 - 運氣同化 : 大運과 司天(天符), 大運과 年支五行(歲會), 大運과 在泉(同天符,同歲會)의 관계
 - 平氣 : 주로 大運과 司天, 年支 사이의 관계,
 - (cf, 干德符 : 新年 交運時, 즉 大寒節의 年干과 日干, 年干과 時干의 一致與否)
- => p 37 하단 참조

4)運氣相合：五運과 六氣의 主와 次의 문제(五運과 六氣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해서 해석할 것인가)

(1)運氣相臨(盛衰)

- 順化：氣生運(司天之氣가 大運을 生)(六氣가 主, 五運이 次) -- 氣候 변화가 平和
- 天刑：氣克運 (“) -- 변화가 특히 極烈
- 小逆：運生氣 (五運이 主, 六氣가 次) -- 변화가 비교적 棼
- 不和：運克氣 (“) -- ”

♣運은 부모, 氣는 자식, 不和는 부모가 자식을 자꾸 누르고, 天刑은 자식이 부모에 반항

(2)運氣同化(그해 전년을 주관하는 大運과 客氣의 어떤 속성이 같은가?)

- ①天符----> 大運 = 司天之氣의 五行屬性：기후변화가 비교적 棼
- ②歲會----> 大運과 歲支之氣(=地支의 兄弟五行(方位)배속)가 같고 五方의 正位를 얻은 것 : 子 午 卯 酉(四正方), 辰 未 戌 丑(四隅)의 年에만 해당：기후변화가 비교적 棼
- ③太乙天符 ----> 天符이면서 歲會(즉 大運 = 歲支 = 司天)：기후변화가 가장 極烈
- ④同天符-->太過年(陽干이고 陽支年) 大運과 在泉之氣의 屬性 相同 :기후변화가 비교적 棼
- ⑤同歲會-->不及年(陰干이고 陰支) 大運과 在泉之氣의 屬性 相同 :기후변화가 비교적 棼

(3)平氣：五運의 氣가 和平하고 커다란 변화가 없으며 太過도 不及도 아닌 경우

① 運氣의 관계에 따라 추산

- 運太過而被抑：大運이 太過한 해에 만약 司天之氣의 五行屬性이 運을 克할 때
- 運不及而得助：大運이 不及한 해에 - 大運과 五行屬性이 같은 氣가 司天하거나 - 年支의 五行屬性이 같을 때

③ 干德符：每年 交運時 年干과 日干의 관계로 推算하는 방법：

每年 初運의 交運시간은 大寒節이다. 交運되는 첫째 날 (=大寒節)에, 年干과 日干이 相符하거나 年干과 時干이 相符하면 平氣를 이룬다.

■五運三氣之紀：五運의 太過·不及·平氣를 五運三氣라 함 ==>大運으로 판단

	木	火	土	金	水
平氣	敷和	升明	備化	審平	靜順
不及之氣	委和	伏明	卑監	從革	涸流
太過之氣	發生	赫曦	敦阜	堅成	流行

※ 五音에 의한 太過, 不及, 平氣 표시： ex) 木의 太過, 不及, 平氣 - 太角, 少角, 正角

ex) 甲子年：①客運：甲己土 =>‘角徵宮商羽’ 五音의 ‘宮’에 해당

甲土는 太過로 太宮이 됨

②主運：太宮의 太를 主運의 성질이 같은 運인 ‘宮’ 즉

三運에붙여 다시 太少가 相生하는 순서로 배열

	初運	二運	三運	四運	五運
客運	太宮	少商	太羽	少角	太徵
主運	太角	少徵	太宮	少商	太羽

參考書籍) <黃帝內經概論> 임진석 編著, 법인문화사, <五運六氣學解說> 법인문화사